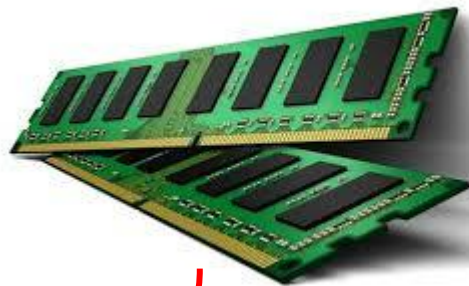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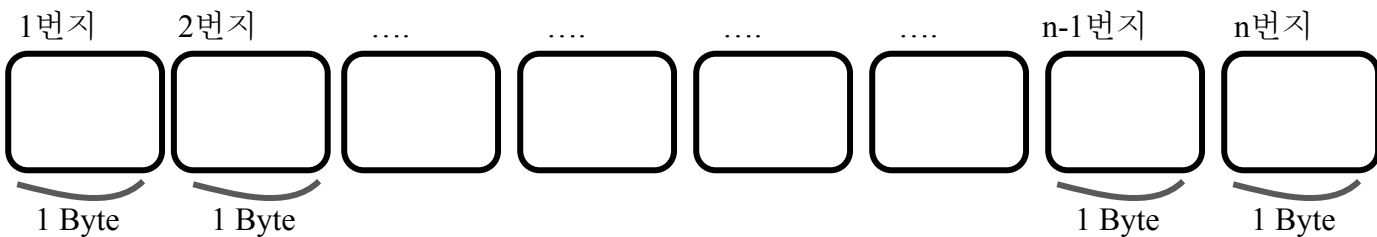


## < 메모리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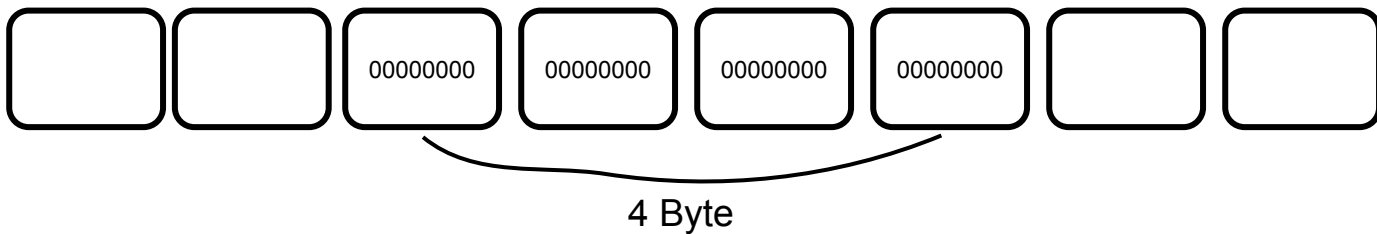


| 자료형(data type) |             | 할당되는 메모리 크기   | 표현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
| 정수형            | char        | 1 바이트         | -128 ~ +1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short       | 2 바이트         | -32768 ~ + 3276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int         | 4 바이트         | -2147483648 ~ + 2147483647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long        | 4 바이트         | -2147483648 ~ + 2147483647                       |
| 실수형            | float       | 4 바이트         | $3.4 \times 10^{-37} \sim 3.4 \times 10^{+38}$   |
|                | double      | 8 바이트         | $1.7 \times 10^{-307} \sim 1.7 \times 10^{+308}$ |
|                | long double | 8 바이트 혹은 그 이상 | 차이를 많이 보임  |

1. 컴퓨터가 갖고있는 메모리가 1바이트 단위로 나뉘어짐
2. 바이트 단위로 나뉘어진 용량은, 주소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음 (1번지당 1바이트)
3. 변수를 선언할때, 임의의 메모리에 자료형 크기만큼의 값이 할당됨

```
int num;
```

```
num = 0;
```



int num 선언

-> 임의의 메모리 주소에 4바이트가 할당되며, 변수명과 해당 메모리 영역이 링크된다

num = 0 대입

-> num 이 갖고있는 32개의 비트(bit)들을 통해 값 0을 만든다

## < 변수의 선언 >

컴파일러에게 변수의 존재를 명시해주는 행위

컴파일러는 임의의 메모리를 할당하고, 변수와 해당 메모리를 링크시킨다

```
int iNum;  
double dNum;  
char ch;
```

## < 변수의 정의 >

컴파일러에게 변수의 내용(값)을 결정하는 행위

대입연산(=) 을 사용하기때문에 대입한다고도 한다

```
iNum = 10;    // int형  
dNum = 3.14;  // double형  
ch = 'a';     // char형
```

## < 함수의 선언 >

컴파일러에게 함수의 존재를 명시해주는 행위

함수가 정의된 위치가 호출된 위치보다 아래에 있을때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한다

```
void func();
```

```
int main()
```

```
{
```

```
    func();
```

```
}
```



```
void func()
```

```
{
```

```
    ...
```

```
}
```

```
int main()
```

```
{
```

```
    func();
```

```
}
```

```
void func()
```

```
{
```

```
    ...
```

```
}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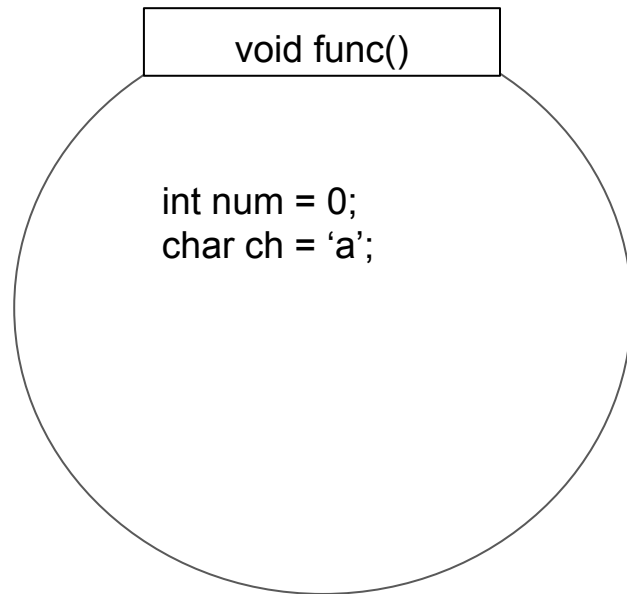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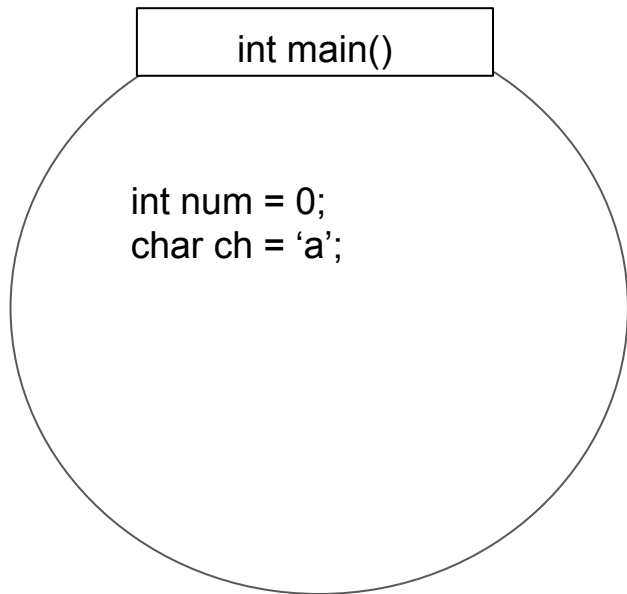


## < 함수의 정의 >

컴파일러에게 함수의 내용을 결정하는 행위

```
void func()  
{  
    printf("This is func");  
}
```

## < 함수의 영역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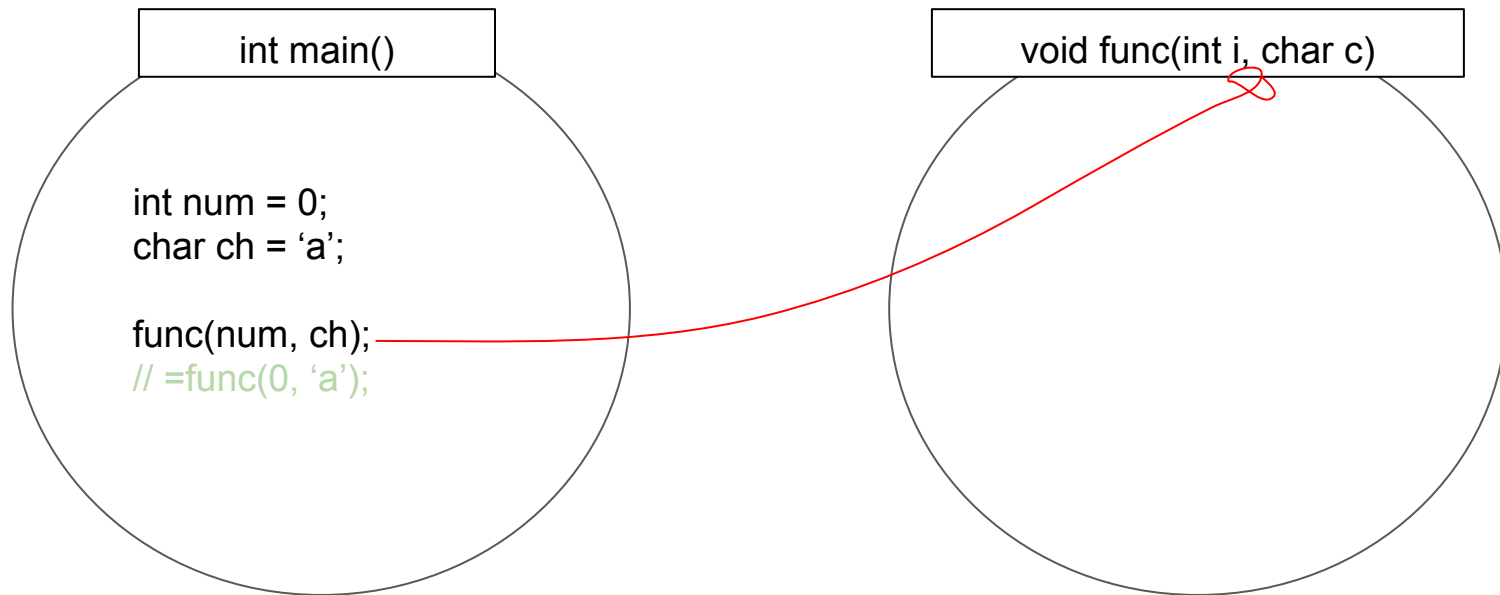


[main]과 [func]는 다른 영역이다.

[main]에서 `num`변수와 `ch`변수는 서로 교류가 가능하지만  
다른 영역인 [func]의 `num`변수와 `ch`와는 교류가 불가능하다

\* 위 예제는 서로 다른 동네에서 동명이인이 있다고 생각하자 \*

## < 함수의 영역간 교류 >



다른 영역간의 교류는 함수 호출시 전달되는 인자를 통해 가능하다

전달된 인자는 호출된 함수의 매개변수가 받는다

전달되는것은 원본변수가 아닌 값만 전달된다



## < 포인터 변수 >

변수의 주솟값을 담는 변수 (시작 주솟값)

```
int num = 0;    // int형 변수 선언
int* ptr;       // int형 포인터 변수 선언

ptr = &num      // ptr 에 num 변수의 주소를 대입
               // 변수 좌측에 &(ampersand) 기호를 붙이면, 해당 변수의 주솟값을 얻는다

*ptr = 5;       // num = 5 와 같은 의미, 포인터 변수앞에 *(별) 기호를 붙이면
               // 해당 포인터 변수가 갖고있는 주소를 참조한다
```

## < 포인터 변수의 존재 의미 >

1. 다른 함수에 주솟값을 보내서, 원본을 직접 참조할 수 있게한다
2. 어떤 변수를 참조하려할때 복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크기일때(구조체), 주솟값만 알고있으면 굳이 복사할 필요는 없다

## < 구조체 >

사용자 정의 자료형

여러 변수를 한번에 정의하고 싶을때 사용한다

```
struct Student {           // 구조체 정의
    char class;
    int age;
    int weight;
};
```

```
struct Student gilDong;    // struct People 이라는 자료형을 갖는 변수 선언
gilDong.class = 'C';       // '.' 을 통해 구조체 내부 변수 참조
gilDong.age = 24;
gilDong.weight = 60;
```